

3/29/20

설교 제목: 죄 덮힘 받은 은혜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9 장 18-29 절

(창 9: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창 9:19)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절관주** 창 10:32

(창 9: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창 9: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창 9: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창 9:23)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창 9: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창 9:25)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창 9:26)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창 9:27)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 9:28) ○홍수 후에 노아가 삼백오십 년을 살았고

(창 9:29) 그의 나이가 구백오십 세가 되어 죽었더라

본문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잔 노아와 그런 아비의 허물을 대하는 세 아들들의 태도, 그리고 이들이 받은 저주와 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는 아들과 함께 방주가 머문 아르메니아 지역에 정착하여 농사로 생계를 꾸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포도 나무를 심고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골아 떨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막내 아들 함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밖으로 나가 두 형 야벳과 셈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야벳과 셈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술이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였으며 노아의 후손들을 향한
저주와 축복은 그대로 성취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 9: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창 9:19)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본절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과 노아의 자손으로 모두 한 아버지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 절에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을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과 특별히 함의 아들
가나안을 강조하여 거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들들을 소개할 때는 큰 아들부터 출생 순서대로 소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자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출생 순서로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하자면 '노아의 아들은 야벳 셈 함이며'라고 했어야 합니다.

또 아들 셋이 모두 각기 자식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유독 함의 자식, 그중에서도 가나안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벳도 셈도 자식들이 있었으며 함에게는 가나안 말고도 구스 미스라임 붓 등 세 자식들이 더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모세가 노아의 아들들을 출생 순서대로 언급하지 않고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구속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언급하면서 가나안을 부각시킨 것은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건의 근거를 설명하기 위한 복선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는 장차 구속사에서 전개되어질 사건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과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자신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 진멸받은 것 등의 사건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창 9: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창 9: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잔 것입니다.

술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마셔 취하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 실수를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노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당대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이같은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에 대해 연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세 아들들이 취한 행동들입니다.

(창 9: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창 9:23)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막내 아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제일 먼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고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두 형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이 상황을 전해 듣고 옷을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얼굴을 돌이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비록 실수를 하긴 했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술이 깬 노아가 자식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창 9: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창 9:25)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창 9:26)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창 9:27)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무리 함이 자신의 허물을 가리어주지 않고 형들에게 일러 바쳤다고 해도 노아의 이같은 저주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지고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노아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잤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아들 함도 아니고 함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인 가나안에게 이토록 심한 저주를 퍼붓다니요?

어쨌든 노아는 가나안, 즉 함의 후손이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합니다.

종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천하게 되라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붙여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후에 그대로 성취되어 가나안 땅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고 가나안 후손들은 셈의 후손의 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반면 노아는 뒤로 들어가 자신의 하체를 보지 않고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먼저 셈을 축복하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이 특별한 영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축복대로 셈의 후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그의 후손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 곧 만 백성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노아는 야벳을 창대케 되라고 축복했습니다.

야벳 후손에게 번영의 복을 준 것입니다.

노아의 축복대로 야벳 후손은 헬라 철학을 꽃 피웠고 강대국 로마를 세웠으며 근대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노아는 야벳 후손에게 또 한가지 축복을 더하는데 그들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벳 후손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야벳 후손인 유럽인은 셈의 후손인 유대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구원의 은혜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던 것일까요?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장막에 더불어 산다는 의미이므로 적어도 구원의 은혜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인류에게 전파될 것이며 누구나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창 9:28) 홍수 후에 노아가 삼백오십 년을 살았고

(창 9:29) 그의 나이가 구백오십 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는 950 세를 살고 모든 인생의 길을 따라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또 한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사건에서 애초 죄를 지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노아는 어떤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노아가 이 사건의 심판자가 되어 함의 후손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저자 모세는 도대체 본문을 통해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신 것일까요?

‘효’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함의 후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죄덮음’입니다.

함은 아비 노아의 허물 즉 죄를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비 노아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지 않은 것과 죄를 덮어준 것이 저주를 받느냐 아니면 축복을 받느냐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즉 ‘죄 덮힘 받은 은혜’를 일깨워 주시고 죄 덮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마땅한 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덮힘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죄 덮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덮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다른 이들의 죄를 덮어 주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살 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마태 복음 18 장에는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주신 답변과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마 18: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마 18: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 18: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 18: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마 18: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마 18: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마 18: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마 18: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마 18:29)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마 18: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마 18: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마 18: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마 18: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마 18: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한 달란트가 6 천 데나리온이니 일만 달란트는 6 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품꾼의 하루 품삯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일만 달란트는 6 천만 일, 약 16 만 4 천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기고 이 어마어마한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겨우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둡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대노하고 종으로 하여금 탕감해 주었던 빚을 도로 갚게 합니다.

예화를 마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 18: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노아의 세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께 죄 덮힘의 은혜를 받고 대홍수에서 살아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홍수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신들의 의와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에게 죄 덮힘의 은혜를 받아 구원 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도 서로 죄 덮음의 은혜를 베풀며 살 길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함은 죄 덮음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을 사함 받고 그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일한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덮힘을 받고 죄가 가리어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롬 4: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롬 4:7)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롬 4: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삽니까?

덮힘 받은 죄를 헤아리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덮어주며 삽니까?

본문의 말씀은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덮힘의 은혜를 받아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죄 덮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